

FAO, 조류독감에 대한 반응

2004년 3월 23일 현재 H5N1로 알려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¹⁾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서 발병하였다. 각국의 발생 상황과 이에 대한 FAO의 반응을 소개한다.

1. 상황

한국 양주에서는 이미 2004년 3월 4일 이후 닭의 사망이 보고되었으며, 이것은 간 질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21일 양주 지역 농가에서는 닭에게서 새로운 조류독감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양주에서는, 최초 발생 지점 반경 3km 내 20농가의 닭과 오리를 40만 마리 도살처분 하였다. 그리고 한국 당국이 조사한 야생 조류(까치 99마리와 까마귀 1마리) 중 양산(1월에 전염되었다고 보고 된 농가와 가까운 지역)에서 까치 1마리가 조류독감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1) 가금인플루엔자는 쉽게 ‘조류독감’으로 이해하면 된다. 조류독감의 원인은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비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구분된다. 특히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 질병으로,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H5N1에서 H와 N의 의미는 혈청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혈청형의 종류는 현재 H1-H15, N1-N9가지가 있으며 총 135(15 X 9)가지로 분류된다.

일본 카메오카시(교토부)에서 죽은 까마귀가 3마리 발견되었고 그 중 1마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들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Lombok, Sumbawa, Flores와 같은 다른 섬들에서는, 현재 높은 가금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의 상황과 질병의 확산을 알기 위해서는 질병 창궐 지역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Utradit, Chon Buri, Chiang Rai 지역에서 감염된 닭이 3천 마리 발견되었다. 그리고 Chaing Mai 지역의 Sansai 행정구역은 닭이 2만 마리 이상 사망하였다고 보고했다. 현재 당국은 Chaing Rai, Chacherngsao, Kampanghet, Rai-Et, Khon Khaen, Uthaithani, Utradit, Chaing Mai, Ayudhya, Chon Buri, Nakophthom 등 11개 지역을 감독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4년 3월 17일, Siem Reap, Kandal, Takeo 지역의 가금류에서 수집된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H5N1 조류독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2004년 2월 26일 이후로 아직 새로운 조류독감의 발생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Tay Ninh 지역 12살 소년에게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감 발생 사례가 발견되었다.

네덜란드 Uithuizermeeden (Eemsmond 자치도시, Groningen 지역)의 농가에서는 2004년 3월 12일 예방 조치로, 정기 검사에서 항체 반응을 보인 2만 2천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였다. 그러나 사람에게 위험한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Lopik (Utrecht 지역)의 농가와 Steenberg의 농가가 조류독감에 항체 반응을 나타내는 6백 마리의 오리나 1천 마리의 조류를 살처분하였다.

2. FAO의 반응

남동아시아 지역의 조류독감 발생에 대응하여, FAO는 다양한 기술협력 계획(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 TCPs) 수립에 동의하였다. 이 계획은 각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US \$ 274만 \$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계획들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창궐하는 조류독감 A에 대응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금류로부터 사람에게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계획이 실시될 지역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환태평양 지역 사무소 등이다.

기술협력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조류독감 A가 가금류와 인간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②질병을 막고 국내에서 질병에 안전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지역의 감독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강화한다. ③미래의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근의 조류독감 A의 창궐에 대해서 기록을 재작성한다. ④가금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와 이 시기의 적정사육두수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기술협력계획(한 계획 당 US \$로 39만 \$의 예산을 책정)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 기술협력계획의 구체적 목적은, 계획 실행 초기에 질병 발생률이나 그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살처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는 안전한 가금류 처리와 전염을 막는 기술, 예방 조치 등에 숙련된 농민과 정부 관계자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국가 차원에서는 감독, 지도

제작, 질병 모형 구축, 연구실 진단능력 강화 등을 통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적 측면에서의 권고

3.1. 현재상황과 권고 사항:

2003년 중반부터 몇몇 지역에서 가금류 피해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2003년 12월부터 8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한국, 태국, 베트남)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OIE)에 H5N1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월초부터는 추가적인 발생국가는 없었다.

이 가축질병의 지리적 분포, 심각함과 확산 속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OIE의 지침에 따른 근절 조치로 1억 마리 이상의 조류를 살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두 국가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추가적 질병 예방 조치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최근 H7N3 조류독감 발생 후, 백신 접종과 같은 근절 조치를 취하였다.

H5N1 조류독감 발생과 빠르고 넓은 확산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질병은 가금류를 취급하는 국제 무역과 국내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금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과 태국에서 이 질병으로 인해 22명의 사망자가 생겨나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진단능력이나 감독능력이 부족하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 의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질병의 발생 상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주변 국가의 전염 예방을 위해서나 가축의 긴급 질병 발생의 대비를 위

해서, 혹은 적절한 당국 개입을 위해서는 가축 질병 상황에 대한 자료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가축 질병 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는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와는 무관해야 할 것이다.

3.2. 성공요소

현재까지의 성공요소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몇몇 국가에서는, 중요한 조치들이 질병의 전반적인 수준을 완화시켰으나, 다른 몇몇 국가들의 상황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제까지 여러 국가들은 감염된 조류의 살처분, 격리와 이동에 대한 통제, 재감염의 예방, 긴급 백신 접종 등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런 조치들은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런 조치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염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도 장차 일어날 질병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3.3. 권고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류독감에 대한 지역별 협력 그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각 회원국들은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OIE에게 알려야 한다.

가축 질병의 발생 날짜, 야생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분자 생물학적인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합의된 기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 보건 감독 체계와 연관되어야 한다. 질병의 감독·반응·통제·근절 활동에 대한, 가축과 공공 보건 서비스 능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자료: FAO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